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시편 126, 5)

사진 : 정승남 토마스(부산가톨릭사진가협회)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

제1독서 지혜서 3, 1~9

화답송 시편 126(125), 1~2ㄱ, 2ㄷㄹ~3, 4~5, 6 (◎ 5)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1.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2.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3.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겟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4.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로마서 8, 31ㄴ~39

복음환호송 1베드 4, 14 참조

◎ 알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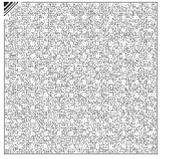
복음 루카 9, 23~26

영성체송 마태 10, 32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주님을 만나러 갑시다



“천주를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날이 선 칼날이 내 목에 닿아있고 주변에는 고통의 비명과 떨어져 나간 머리가 뒹굴고 있다. ‘천주를 믿지 않았더라면’ ‘천주님 당신께로 기쁘게 나아가리다.’ 이렇게 내 신앙을 증거하고 천주께 나아가야 하는데. 마음보다 앞서 혼란스럽고 두렵고, 주체할 수 없는 공포로 몸서리쳐진다. ‘어떡해야 할까? 목숨이라도 살고 봐야 하나.’ ‘아니다! 나 비록 천주께 죄인이나 이 세상에서 천주의 사랑으로 기쁘게 살았으니 이제 죽음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리라. 나 천주를 선택했을 때 이미 세상을 버리고 하늘나라를 살리라 결심하지 않았는가! 앞서 천주께로 나아가간 형제자매들의 손을 붙잡고 오늘 천국에 들리라. 주님, 저들을 제가 용서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조선천주교회를 보살펴 주소서.’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

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로마 8, 38~39)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았다.

간혹 사람들은 순교자들을 향해 어려운 조선 사회의 모습을 빗대어 이렇게 사나 죽으나 매한가지의 심정으로 그저 천국을 바라보며 죽음을 선택했으리라 판단하기도 한다. 그러나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며, 단순한 순간의 선택으로 될 일은 아닐 것이다.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과 굳건한 믿음이 희망으로 삶 속에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들은 위대하다.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살고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놓으셨던 순교자들을 생각하면 그들의 삶 전체가 더욱 존경스러워진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깊은

골짜기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은밀하게 천주를, 그 신앙을 자손들에게까지 전하려 애썼던 우리 신앙 선조들 삶의 순교의 모습 역시 존경할 수밖에 없다.

오늘의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부끄러울 뿐이다. 우리는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후손들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온전히 신앙이 내 삶에 녹아들어 있는지, 주님과 만나러 얼마나 애쓰며 살고 있는지, 얼마나 용기있게 용서하고 사랑하려 하는지를 말이다. 삶의 순교는 자신을 버리고 비워 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또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을 채워나가길 바란다. 그리고 당당히 신앙을 살아가며 외치자. 나는 하느님의 사람이며 하느님의 나라는 영원하리라는 것을.

백성환 안드레아 신부
우정성당 주임



지금 세

그게 우리의 일

폭염에 농작물이 말라붙고 큰물에 모두 휩쓸려갔지만
시장엔 고구마가 나오고 배도 보입니다.
계절의 몫입니다.
잠만 자도 아이들은 살이 오르고
노인들은 눈만 깜박여도 주름이 늙습니다.
시간의 일입니다.
시장에 난 과실들을 먹고 그 씨를 심으며
어제와 달라진 오늘을 인정하고
내일을 또 준비하는 일,
사람이 맡은 몫입니다.



Doan

글·그림 : 이영 아녜스 수필가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Busan Catholic Peace Broadcasting Corporation

부산 FM 101.1 MHz 울산 FM 94.3 MHz 녹산 FM 101.5 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9.18(월)~19(화)
백성환 신부(우정성당 주임)
9.20(수)~23(토)
조성운 신부(삼산성당 부주임)

사랑이 있는 세상 **문자참여 #2340**
월~목 12:15~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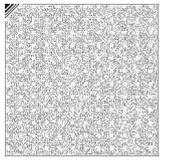
9.19(화) 함께 하는 여정
출연 : 망미성당 천주의 성모 Pr.

다정 다감 다섯시
월~금 17:00~18:00

9.18(월) 리포터 현장
-영도 80대 할머니들의 '시 쓰는 아지트'
출연 : 임영천(헬레나) 리포터



자랑스러운 나의 조상 순교 성인들



최 영 순 분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이란 진리의 열매를 얻기 위해 1784년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가 뿌려져 새싹도 돌아나기 전부터 많은 이들이 갖은 유혹과 박해에도 흔들림 없이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 순교를 하였습니다. 선조들의 믿음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했으며 목숨까지 버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천주교회는 200주년 해인 1984년 5월 6일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집전으로 103위 한국순교 성인 시성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한국인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와 평신도 정하상바오로를 비롯한 103위의 성인성녀들이 탄생하였고, 당신의 역사하신 큰 영광의 날로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주님 대리자인 교황님을 보내 주신 시성식에는 순교성인에 대한 존경심과 축복받은 후손임을 자랑

스럽게 여기며, 피로도 잊은 채 신자들은 버스로 열차로 100만여 명이 대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행사가 끝난 후 주변이 깨끗하게 정리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의 감동과 영광은 주님을 통하여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임을 깨닫고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희망을 꿈꾸며 환희의 송가로 생명을 봉헌한 것임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돌아켜보니 나는 5살 때 아버지를 따라 성당에 갔습니다.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다 혼이 난 기억과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에 적응이 되지 않아 한참 동안 헤맸던 부끄러운 추억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신앙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신 자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온화하고 침착한 성품이신 아버지의 따사로운 손길이

지금도 느껴지곤 합니다.

결혼하여 아버지처럼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내 갈망에 차지 않습니다.

모니카 성녀가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에게 훌륭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오랜 세월 기도와 정성으로 노력했듯이, 작은 신앙이지만 나의 자녀들도 절망과 고통의 고비마다 주님께 의탁하여 지혜를 구하며, 병든 나의 영혼에도 용감하신 순교자들의 정신을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주님께 청해봅니다.

■ 수필가 boon5678@naver.com

주보에 실린 글은 교구 홈페이지 인터넷 주보에서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더 많은 교회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catholicbusan.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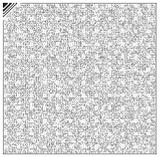


삶이 무척 괴로울 때

가끔 교우님들이 면담을 청하십니다. 너무나도 버거운 삶의 무게에 짓눌려 헉헉거리십니다. 뭐라고 속 시원하게 위로해드려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곤 합니다. 참으로 힘드셨지만 힘을 내시고, 특히 형제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처지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희망을 잃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느낀 것 가운데 하나는 평소에 소홀히 했던 건강에 대한 소중함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병자들 간에도 차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식사만 하더라도 병자에 따라서, 금식, 조절된 식단, 자유 식단 등 다양하고, 한 병실 안의 병자들 간에도 병의 정도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더라도 저보다 훨씬 더 힘든 사람이 힘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

니다. “삶이 힘들 때 새벽시장을 가보라. 밤이 낮인 듯 치열하게 살아가는 상인들을 보면 저절로 힘이 절로 생긴다. 그래도 힘이 나지 않으면 뜨끈한 우동 한 그릇을 시켜 국물 맛의 행복에 빠져보라. 죽고 싶을 때 병원에 한 번 가보라. 스스로 죽으려 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 절로 고개를 숙이게 될 것이다. 내가 버려려 했던 목숨을 그들은 차절하게 지키려 애쓰고 있다. 흔히들 파리 목숨이라고들 하지만 쇠심줄보다 질긴 게 사람 목숨이다.”(권순주, 삶이 힘들 때는 이렇게). 우리보다 먼저 지독한 삶의 고통을 겪으시고 부활로 승리를 이끄신 예수님께서 삶이 무척 괴로운 이들에게 결정적으로 힘을 실어주십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마태 11, 28~30)

■ 전동기 신부(우동성당 주임) jundki@daum.net



전 수 흥 안드레아 신부

금년은 오룬대순교자성지에 묻혀 계신 여덟 분의 부산교구 순교자들이 1868년 무진년에 수영장대에서 치명을 당한지 149년 되는 해로써 내년 9월 20일이면 1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겠다고 다짐한 우리 신앙 선조들이 신앙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명예를 박탈당하고 심지어 가문으로부터도 쫓겨나는 수모를 겪다 마침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그 숭고한 정신을 순교 영성이라 부릅니다.

과거와 같은 물리적 박해가 없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에게도 이러한 순교 영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나로 하여금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현대적 의미의 박해'가 되어 우리를 시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를 유혹하는 다양한 '현대적 의미의 박해

들'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그 무엇보다도 내 신앙을 우선으로 내세우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피를 흘리지는 않았지만 바로 '현대적 의미의 순교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전국의 많은 순교자 성지들이 넓은 공간과 아름답고 훌륭한 건축 및 조경시설로 단장하여 순례자들을 맞이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부산교구의 순교자 성지들은 보존과 개발을 위해 더 많은 것들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이곳 오룬대순교자성지는 2013년 10월부터 한국순교복자수녀회로부터 관리권을 넘겨받아 성지를 새롭게 단장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새 성전 건립을 위해서 많은 신자들이 후원회에 가입해주시고,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오룬대순교자성지에서는 매일 11시 미사를 포함하여 상설고백소 운영(매주 월, 금 오후 2시~3시 30분)과 토요교회사 강좌, 예비신자 특강 등을 통하여 신자들의 신심 함양과 교육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성지를 찾는 순례자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순교 영성을 고취할 수 있도록 '치유와 화해의 성전' 건립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오룬대순교자성지 사목

[성지후원 및 순례 문의] 051)515-0030
홈페이지: www.oryundae.com 혹은
모바일에서 '오룬대 순교자성지' 검색 가능



지나치게 현실적인 문제만 고민하다가,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 슬퍼했습니다. 이 슬픔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현실을 무시하지도 못하겠습니다.

북아일랜드 출신 프로축구 선수가 신학교에 가서 가톨릭 신부가 되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 내용 중에 '초월적 가치'라는 단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세적 가치보다 초월적 가치를 쫓아서 삶의 방향을 바꿨다는 인터뷰였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가치라 해서, '초월적'이라 했을 겁니다. 신앙은 대표적인 초월적 가치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어루만져주고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묵상하고 선포하는 일은 이 세상 안에서 값어치가 나가는 일이기보다는, 이 세상을 넘어서 볼 때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안락한 삶, 건강과 명예 등을 말하는 '현세적 가치'는

이 초월적 가치 반대편에 자리합니다. 신앙인은 누구나 이 두 가치, '현세적 가치'와 '초월적 가치' 사이에서 매번 고민을 합니다. 답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땅에만 매달려 있을 수도 없고, 반대로 하늘만 쳐다보면서 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땅이 현세의 영역이라면 하늘은 초월과 거룩함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이 두 영역 사이에 있는, 하늘과 땅 '사이 존재'입니다. 질문자의 슬픔은 아마도 이 '사이'를 잃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초월적 가치'를 포함시켜야 '사이'가 만들어집니다.

■ 홍경완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학장) mederico@cup.ac.kr



교구
소식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교구 도입 50주년 기념행사

-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태 10, 9)

올해 교구 도입 50주년을 맞은,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지도 : 김영환 신부, 회장 : 황규하 이냐시오)가 지난 9월 9일(토) 부산가톨릭대학교 베리타스관에서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빈첸시오회의 정체성 및 빈첸시안 양성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광주대교구 사회사목국장 김명섭 신부의 특강, 기념케이크 커팅식, 격려사 및 비전 발표, 파견 미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별히 미사 중에 그간 빈첸시오회를 위해 노력한 신자들에게 우수활동상(조태덕 미카엘 씨 외 11명), 공로상(이형택 시몬 외 2명)이 수여되었다.

황철수 주교는 미사 강론 중에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을 내면화하여, 세상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직성당, 새단장

9월 3일(일) / 주임 : 김원석 신부, 회장 : 김한수 바오로 사제관, 수녀원, 사무실, 성물판매소, 마리아관(소성전 및 다목적홀) 축복식

‘본당의 날’ 축하합니다



9월 10일(일) 살티순교성지, 언양성당 / 주임 : 오창열 신부, 회장 : 윤중구 요셉

♣ 21일 : 마우라, 마태오, 펠레시오, 알렉산데르, 요나, 이사치오, 이피제니아, 팜필로

가톨릭음악협회 발전 기금 전달 - 시스티나성당 합창단 공연 수익금



우리 교구는 지난 7월 11일(화) 부산KBS홀에서 열린, 교구 설정 60주년 기념 ‘교황청 시스티나성당 합창단’ 초청

공연 수익금 전액 2천만 원을 부산가톨릭음악협회(지도 : 임석수 신부) 발전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9일(토) 교구청에서 전달식을 가졌다.

손삼석 주교는 “우리 교구 신자들이 음악 협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6지구 청년연합회, 토크 콘서트



지난 9월 10일(일) 서면성당 내 센다(Senda)에서 ‘지금, 여기, 우리’라는 주제로 6지구 청년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크 콘서트’가 있었다. 이날 콘서트에서 방송, 언론, 사회, 종교계에 종사하는 4명의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6지구 청년연합회(지도 : 박힘찬 신부, 회장 : 성해랑 세레나) 주관



신선

9월 10일(일) 천호성지 / 주임 : 김상호 신부, 회장 : 이성호 안토니오



복산

9월 10일(일) 본당 / 주임 : 윤용선 신부, 회장 : 윤종양 베드로

용호성당, 가두 선교 및 작은 음악회



용호성당(주임 : 임영민 신부, 회장 : 최상기 라파엘) 청년회 회원들과 청년 레지오 단원들은 지난 9월 10일(일) 장자산 쉼터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음료를 나눠주고, 음악 공연을 선보였다.

교 구

성직자 성화를 위한 미사

· 9.18(월) 10:00 목주기도, 10:30 미사
· 교구청 2층 성당
문의 : 629-8760(성소국)

성소자를 위한 기도모임 9월 행사

· 9.22(금) 08:30 교구청 출발, 08:30 월평성당 출발
· 대구대교구 한티 성지 / 미사 있음
준비물 : 미사준비 및 편한 복장과 신발
문의 : 629-8760(성소국)

제4기 성모어머니학교

· 10.19~11.16 매주 목 10:00~15:00(총 5주 과정)
· 교구청 5층 강당
접수 : 8.16(수)~9.30(토), 선착순 49명
대상 : 자녀를 둔 어머니(종교 무관)
문의 : 010-2202-0470, 010-8822-1993

제9기 성요셉아버지학교

· 10.21~11.18 매주 토 15:00~21:00(총 5주 과정)
· 부곡동 한국외방선교수녀회 강당
접수 : 8.16(수)~9.30(토), 선착순 49명
대상 : 자녀를 둔 아버지(종교 무관)
문의 : 010-6408-6111, 010-3460-0696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특별기획 소리로 만나는 영화

소리 풍경

배리어프리 영화콘서트

1부 - 배리어프리 공연
2부 - 영화 '사랑하기 때문에' 무료 상영

일시. 9월 26일(화) 15:00
장소. 가톨릭센터 소극장
문의. 600-8800

본 당

수정마을성당 은혜의 밤

· 9.21(목) 19:00 미사 시작
주제 : 어려본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 본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가사 : 이미숙 수녀 / 문의 : 337-9445

기관 · 제 단체 · 위원회

시각장애인선교회 후원회 미사

· 9.18(월) 12:00 · 선교회 3층 성전
주례 : 박성태 신부 / 문의 : 464-3909

해양사목 월미사

· 9.18(월) 14:00 · 가톨릭센터 3층
주례 : 이규태 신부 / 문의 : 464-2707

부산 마리아세운동 체나콜로 기도 및 월미사

· 9.19(화) 14:00 / 지도 : 윤명기 신부
· 가야성당 / 문의 : 010-8879-2376(회장)

부산가톨릭음악협회 후원회 감사미사

· 9.20(수) 19:30 · 양정성당
주례 : 임석수 신부 / 연주 : 부산가톨릭합창단
문의 : 010-8545-6504

전례꽃잎이연구회 미리보는 전례꽃 및 월미사

· 9.25(월) 10:30 · 교구청 2층 성당
문의 : 010-4554-1173, 010-5064-6512

부산교구 공원묘지 **하늘 공원**

2017년 레파시오 추모음악회

일시/ 9.30(토) 11:00 장소/ 봉안당 내 경당
문의 : (055)374-8732~3(관리사무실)

† 미사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3층 경당
† 셔틀버스 운행 10:00 온천장 전철역(1번 출구)
09:00 남천동 교구청 10:30 양산 전철역(2번 출구 건너편)

부산ME 소개모임

· 9.18(월) 20:00 · 남천성당
351차 ME 주말 : 9.22(금)~24(일)
사랑방 ME 소개모임 : 수시
문의 : 010-4872-5051(울산)
010-2703-0155, www.mekorea.or.kr/bs

오른대순교자성지 후원회 미사 및 특강

· 9.21(목) 11:00 · 오른대순교자성지성당
강사 : 옥현진 주교(성지순례사목소위원회 담당)
주제 : 순교 영성 / 문의 : 515-0030

김해성음악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 다성음악과 미사곡(C. Casciolini) -
· 9.23(토) 20:00 · 활천성당 성전
지도신부 : 문성호 신부 / 지휘 : 안창섭, 반주 : 이외숙
문의 : 010-4430-3307(단장 : 이우유)

희망나눔사업 : 청소년 안경, 개안수술 위한 자선음악회

· 9.23(토) 18:00 · 부산문화회관대극장
문의 : 010-3838-1025
주최 : (사)기회의학숙, (사)한국콜맹협회

Arca 청년성서모임 제58차 마르코 연수생 모집

· 10.6(금)~9(월) · 양산 정하상 바오로 영성관
모집 : 9.22(금) 까지
문의 : 469-0761, cafe.daum.net/psbiblefamily

부산성모병원 편의시설 임대사업자 모집

지하 1층 신라명과 전용면적 : 42㎡(상호 변경가능)
임대조건 : 보증금 2억, 월세 50만원(입찰 최저가)
부가세 별도 / 계약기간 : 협의, 입찰기한 : 9.29(금)
입찰자격 : 빵집임대 우선, 입찰자 직접 경영,
전전임대 불가 / 문의 : 933-7033(총무팀)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 젊은이 성령기도회
· 9.18(월) 19:30 전포성당
· 9.20(수) 20:00 울산대리구 별관
- 수요치유기도회(버스안내카드 참조)
· 9.20(수) 11:00 / 점심 제공

울산대리구 (052)244-7014 울산 영성의 집

- 100단 목주기도(미사, 안수) / 점심 제공
· 9.18(월) 09:00~17:00 울산 영성의 집
- 울산 기도회
· 9.21(목) 20:00~23:00 / 강사 : 이광우 신부

제16차 치유 대피정

일시 : 9.22(금) 22:30~23(토) 16:00
강사 : 이성진 신부, 황인숙 자매(서울대교구)
철야기도회 일정 포함(철야버스 동일은행)
준비물 : 세면, 필기, 미사도구 준비(참가비 없음)

전화 접수 : 영성의 집 (055)382-9465~6

<p>(주) 씨피여행사</p> <p>1. 1/2 이스라엘 이태리 11일 455만원 2. 4/15 스페인도보100순례 13일 325만원 3. 4/23 스페인 일주 루르드 13일 405만원 4. 4/26 이스라엘 성지순례 9일 375만원</p> <p>247-5858, 010-3837-6434 부산출발</p> <p>경찰청 지정 전문학원강사 책임 지도</p> <h2>도로연수</h2> <p>전문강사 : 김 정 근 (바실리오)</p> <p>010-6555-8655</p> <p>도로연수는 나와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p>	<p>바른성모안과</p> <p>망막(황반변성, 당뇨망막증, 망막혈관폐쇄), 백내장 원장, 최 베드로(한국망막학회 정회원)</p> <p>242-0075 서구청 옆 바른병원 3층</p> <p>루르드/파티마 성지와 산티아고 순례길 41일 429만원</p> <p>10/11 (인술자 동행) 안지원 (스테파노)</p> <p>070-4086-0207 www.catravel.co.kr</p>	<p>인성심리상담센터</p> <p>놀이치료, 미술치료, 모래놀이치료 대상 :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p> <p>612-5611 insungtherapy.modoo.at 남천동 부산은행(광남지점) 3층</p> <p>법무법인 율강</p> <p>민사, 형사, 가사, 회생, 파산, 조세, 행정 등 각종 법률상담 대표변호사. 임 경 표(세례자요한)</p> <p>717-2570, 010-7455-1031</p>	<p>전립선, 성기능, 요실금, 결석, 남성수술 스마일 정경우비뇨기과 정 경 우 (시몬) 전 동아대병원 비뇨기과 과장/주임교수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타워메디칼 2층</p> <p>744-8181 www.bmu.co.kr 상담 010-5616-8600</p> <p>삼진커튼</p> <p>수입커튼, 암막커튼, 우드브라인드, 콤파브라인드 이영복(요셉) · 김미현(마리아)</p> <p>010-8546-2453 부산진시장 1층 11호문 앞</p>	<p>제주도관광안내</p> <p>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에서는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p> <p>(064)758-6476 010-4566-6476</p> <p>이상열 마취 통증의학과 의원</p> <p>허리통증(디스크), 좌골신경통, 무릎관절통, 목·어깨통증(오십견), 손·발 저림 및 시림 구서전철역 앞 동산약국 2층 원장/전문의 이상 열(베드로)</p> <p>516-0888</p>
---	---	---	---	---

가톨릭서예인회 9월 정기모임

· 9.26(화) 18:30 · 남대문(서면 영광도서관 앞)
문의: 010-8521-9522(회장) ※회원 수시 모집

가톨릭센터 사진교실 가을학기 수강생 모집

초급반 개강: 10.12(목) 19:00 (매주 목요일)
강사: 최경현(사진작가)
과정: 15회 과정 / 수강료: 20만원

가톨릭센터 사무실 임대(6층, 7층)

용도: 사무실(6층 15평, 7층 20평)
문의: 462-1870(행정실)

제22기 인문고전대학 개강

개강: 10.10(화) 19:00 가톨릭센터
과정: 매주 화, 수, 목 강의(10주간)
화: 침묵의 철학, 선 - 김미숙
수: 신화와 문학의 기억 - 안수현
목: 서양 미학과 예술의 원리적 이해 2 - 김창준
문의: 510-0554(인문학연구소)

cpbc부산가톨릭평화방송 2017년 공개채용

모집부문: 아나뉴서(아나운서 겸 PD), PD
마감: 10.9(월) 17:00 / 문의: 600-8800
홈페이지(www.pbchs.co.kr) 참조

시각장애인선교회 상설고해소 운영

· 매주 화 15:00~17:00 / 문의: 464-3909
· 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 3층 성전(박성태 신부)

교육 · 모집 · 기타

노인복지주택 환돌실버타운 입주자 모집

신축 20평형 10월 중순 입주 신청 중
대상: 독립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 부부(또는 단독) - 의료, 건강서비스 및 취미활동 지원
신축 10호동 기념미사: 9.25(월) 16:00
문의: 758-6231, 010-5574-6231



부산교구 News & Focus 유튜브 방송
가톨릭라이프부산
www.catholicbusan.or.kr

▶ 모바일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교구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최신 방송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알림과 소식 - 가톨릭라이프부산)

삼위일체수녀회 <3+1 미사>

· 9.18(월) 19:30 · 삼위일체수녀원
대상: 미혼남녀 누구나 / 문의: 463-7660

밀양가르멜수녀원 후원회 미사

· 9.20(수) 11:00 · 남천성당 소성전
주례: 이흥기 몬시뇰 / (055)353-6597

렉시오디비나와 향심기도 하루피정

· 9.24(일) 10:30~16:00 · 새 예루살렘
문의: 052-239-1249 010-5488-1239
9.20(수)까지 신청 / 15:00 주일미사(왕신부 집전)

파주 올리베따노수도회 후원 미사

· 9.26(화) 14:00 · 성분도 은혜의 집(광안리)
문의: 010-9344-3771

MBTI와 마음여행 2단계

· 9.30(토) 10:00~17:00 · 성심영성센터
내용: 자신과 가족의 강점 및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심리적 게임 인식을 통한 성숙한 관계 형성
문의: 581-3114

울산지역 마그마 힐링 지도자 3급 특별과정

과정: 무의식 치유 및 내적분석 체험
대상: 내적통합 및 치유를 원하는 자
교육: 1일차 10.16(월), 2일차 10.23(월), 3일차 11.6(월), 4일차 11.20(월) / 교육비: 120만원
(복산성당 / 문의: 010-4512-3499
(사)마그마미술 심리연구원)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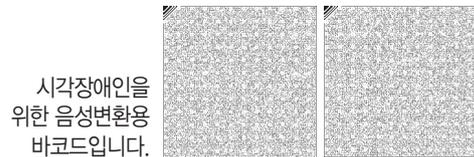
최양업 신부 가경자 선포 1주년 특별전 <길 위의 사제 최양업>

· 9.20(수)~12.31(일)
<가톨릭문화> 체험교실

· 매주 토요일(예약)
내용: 십자가 · 성모상 만들기 / 회비: 5천원
대상: 10인 이상 예약 시 운영
문의: 583-2923, Fax 583-2924(학예실)

가톨릭사지대학교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수시 1차 원서 접수: 9.11(월)~29(금)
문의: (054)851-3021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입니다.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프로그램

문의: (031)946-2337~8, www.jesumaum.org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0.13~15, 12.1~3 시작 17:30
9.21~29, 10.16~20, 10.16~24, 11.20~24 시작 14:00
이나시오 영성수련: 9.22(금)~24(일) 시작 17:30
내적영성 에너지그램(기본1,2과정): 10.13(금)~15(일) 시작 15:00

성경 거룩한 독서 피정

· 9.23~24, 10.7~8, 10.14~15, 10.21~22, 10.28~29, 11.25~26, 12.9~10, 12.16~17, 12.23~24, 12.30~31 토 14:00~일 16:00 / 피정비: 5만원
· 경남 고성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강의: 유덕현 신부 / 문의: 010-2816-1986

청주교구 성령대회

· 9.23(토) 09:30~17:30 / 무료 숙박
문의(010-3798-5418): 부산역(06:00)-서면우체국 12번 출구(06:10)-시청 건너 4번 출구(06:15)-동래 전철 3번 출구(06:40)-김해시청 건너(07:00)

2018년 화요일아침예술학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0.16(월)~31(화)
모집인원 및 자격: 여학생 10명, 중학교 졸업 예정자 및 중학교졸업학력 검증고시 합격자
문의: 070-8891-3831(교무실), (031)832-9988(행정실), www.flowerdaymorning.com
※ 서울가톨릭청소녀회 무상 운영, 기숙형 학력인정 대안학교(미술적 재능을 가진 어려운 가정환경의 학생들에게 일반교육과정 및 미술심화교육과정운영)

배상섭 신부와 함께 하는 성지순례

· 2018.4.23(월)~5.5(토) · 서유림성모성지
부산 출발 / 문의: 010-3837-6434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1월 정규입학 모집

대상: 초5~중3 / 기간: 단기(1년), 장기(1년 이상)
문의: (02)2258-8983, oakinternational.co.kr
(그리스도의례제오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부산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2016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1) 3개 부문 선정!
2017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4년 연속 선정!
2017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선정!

부산성모병원 정형외과 안성준 과장

세계 3대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8년판 인명사전 등재

전문진료과목: 목,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척추외상, 척추내시경, 척추측만증, 척추미세수술

보건복지부 지정 인증의료기관

가톨릭선원 복음문화나눔 행복만 세상

가톨릭센터 문화공연 아름다운세상 70
김정식 로제의 대중음악이야기(1)
歌客 김광석을 노래하다
일시. 9/22(금) 19:30 장소. 가톨릭소극장 * 무료 입장
내용: 생활성가 가수 김정식 로제가 들려주는 대중음악 이야기
문의: 462-1870 / www.bccenter.or.kr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 · 탈자를 발견하시면 우편이나 팩스(629-8756),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국가 공인 1급 조율사 직영점 -
아마하중고피아노직수입
삼익영창그랜드피아노판매
중고 피아노 사고 팝니다
조태상(클라로) · 이정미(노엘라)
851-4545, 010-3597-4641

수맥과 건강
불면증, 만성피로, 혈액순환장애, 정신집중 안됨
치료해도 효과를 못 보시는 분, 문의 환영
사무실 517-3233
서순복(말바너) 010-3862-6834

양지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지오션시티에 있는 양지부동산은 바른 생각과 정직한 매물로 고객님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드리는 부동산 길라잡이가 되겠습니다.
임 선 주 (모니카)
010-2428-4680, 201-7500

대동병원 무릎관절센터
무릎 관절염, 무릎 인공 관절, 관절 내시경, 스포츠 외상
정형외과 송무호(토마스)박사
미국 피츠버그 대학병원 전임 의사
영국 옥스포드 대학병원 연수
동래 전철역 옆 554-1233
www.ddh.co.kr

해충 방역 소독 약취완전제거
허정희 (토마스)
010-9689-8119
(NAVER: 바이빅스)

백천피부과의원
(구) 괴정동 백천피부과
조광윤(안토니오), 김정민(아렛따)
758-1100 지하철 수영역 3번출구
기미·잡티·여드름·홍조·에스테틱

건설현장의 꽃
조은 이동타워 크레인
독일 LIEBHERR, MK80, 88, 100, 110, 등
MK80-마스타30M 펌42M엔드 1.7톤작업
MK100-마스타35M 펌52M엔드 1.6톤작업
MK110-마스타35M 펌52M엔드 1.8톤작업
장비임대, 현장답사(상당함영)
1833-6368, 010-3831-2403
심 현 진 (프란치스코)

재활전문
수요양병원
재활·작업치료의 명품 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인증의료기관
입원상담. 750-7000, 7080
오 세 문 (베드로)

라파엘여행사
10/19, 23 스타야고 도보순례 14일 389만원
10/24 크로아티아, 발칸 11일 359만원
12/15 중남미 17일 1150만원
성지순례 (02)778-8565

부산최초제조허가, KGMP(우수제조)인증업체
복지카드소지자(수급자무료제작, 일반90%혜택)
독일보청기
독일, 미국, 스위스 수입디지털보청기
맞춤형 당일 제작, 즉석 수리
김 무 나 (글라라) * 교우특별할인
803-5588, 1871
서면 지하철도역 4, 6번 출구(1층 빨간색 간판)